

한국판 그린뉴딜 당진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1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시설 2 김홍장 당진시장
3 당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도시인 당진시가 당진형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10일 당진형 뉴딜 제1호 사업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2025년까지 1조1천31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당진형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당진은 국내의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도시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2018년 기준 5천9만1천366MWh로, 전력자립도가 무려 416%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든다.

당진의 주력 산업은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산업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 사업장 상위 10곳 중 2위에 오른 사업장이 당진에 있다. 화력발전까지 포함하면 상위 10개 사업장 중 2곳이 위치한 곳이 바로 당진이다.

당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8년 3만9천 t, 2019년 2만2천 t에 이른다. 2년 연속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배출량이다.

당진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화력발전 추가건설 계획은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도입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됐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2곳은 시와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을 이행 중이다.

당진형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는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를 비



롯해 지역에너지 산업 전환을 꿈꿀 수 있다.

RE100 산업단지는 45만8천900㎡의 부지에 202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로, 시는 이곳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와 달리 당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더는 에너지 전환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정 연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과 에너지 신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당진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❶